

광주 제조업 종사자 3년 연속 감소

10월 말 기준 7만1130명

지난해 동기 대비 2.2% 줄어

서울 이어 전국 두번째 감소폭

제조업 불황으로 광주 제조업 종사자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사업제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광주지역 제조업 종사자는 7만113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2%(1633명) 감소했다.

지난 2022년(10월 기준) 8만명에 육박했던 광주 제조업 종사자는 이듬해 7만5083명으로 줄더니 지난해 7만2763명, 올해 7만1130명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올해 1~10월 광주 제조업 종사자의 누계 감소율은 2.4%로, 서울(3.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다.

광주 제조업 종사자를 세부 산업별로 보면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종사자가 19.4%(7718→6224명) 줄며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어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14.1%, 가구 제조업 8.7%, 의류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7.5%, 전기장비 제조업 5.1%, 의복·의복 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4.1%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광주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건 사업체 감소에서 비롯됐다. 지난 2023년 광주 제조업 사업체는 1만711개로, 전년(1만1661개)보다 8.1%(950개) 줄었다.

올해 10월 기준 광주 제조업 생산지수는 110.4로, 전년 같은 달 121.2보다 10.8포인트나 하락했다.

공장 가동률을 가능할 수 있는 광주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올해 1~9월 기준으로 전년보다 1.3% 줄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 전기 사용량은 11.9%나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플라스틱(31.1%), 의복·모피(24.8%), 음료(23.9%), 식품(23.8%), 기타 운송(23.4%), 인쇄·매체(22.7%), 가죽·가방(22.4%), 섬유제품(20.8%), 가구(20.7%), 담배(20.6%), 산업기계(19.2%)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광주 제조업에서 전기 사용량 1~3위에 드는 전자·통신(10.5%), 자동차(1.4%), 전기장비(6.7%)도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이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켄텍, 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캠퍼스 금융 인프라 확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지난 12일 나누 시빛가람동 켄텍 대회의실에서 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이번 협약은 금융 분야 협력 모델 구축 및 캠퍼스 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하나은행은 2026~2030년 켄텍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주요 금융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은 계약 기간 중 켄텍 발전을 위한 기금을 출연해 대학의 성장 기반 조성에 동참하며, 자산관리, 회계·출납, 금융서비스 등 업무를 전담한다. 또 교내 영업점 운영 등 캠퍼스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학생·교직원들의 편리한 금융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자산관리 및 재정 운영 효율성 강화, 학생·교직원 대상 금융 서비스 고도화, 대학 발전



기금 출연 통한 지속적 성과 창출, 금융·교육 분야 협력 모델 발굴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호 켄텍 총장직무대행은 “대학의 재정과 체계적인 자산 관리는 향후 성장과 운영 안정성 확보

에 중요한 요소다”며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금융 업무 강화, 안정적 재정 운영 기반 마련 드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호두까기 인형’ 공연 임직원·가족 초청 HS효성 연말 조직문화에 온기 불어넣어

올들어 300여명 문화가치 공유

HS효성이 사내 문화 프로그램 ‘컬처 투게더 시리즈’를 통해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공연에 임직원과 가족 60명을 초청하며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14일 HS효성에 따르면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된 ‘컬처 투게더 시리즈’는 2024년 HS효성 그룹 출범 이후 조현상 부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내 문화 프로그램이다. 임직원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 간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에는 세계적 영국 록밴드 폴드플레이의 내한 공연을 시작으로 디즈니 100주년 전시회, 싸이 흠뻑쇼, 호두까기인형 등 총 네 차례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300여명의 임직원에게 문화 가치를 공유했다.

올해 네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호두까기인형’ 공연은 독일 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왕’을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대표적 연말 발레 작품이다. 포근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화려한 무대가 조화



HS효성 2025년 연말 ‘컬처 투게더 시리즈’ 임직원 초청 포스터. (HS효성 제공)

를 이루며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공연으로 꼽힌다.

HS효성은 ‘가치 또 같이’라는 슬로건 아래 임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공감 형성에 힘쓰고 있다. HS효성 관계자는 “임직원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따뜻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 내년 6월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

는 사업이다. 애초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

“군 공항 이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광주상의 이전 TF 앞두고 성명

오는 17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앞두고 광주지역 경제계가 현행 ‘기부대양어’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전 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식화했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14일 호소문을 내고 “지방정부와 민간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형 국책 수준의 군 공항 이전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 이전을 지역 재정 문제로 떠넘기는 현 체제가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국방부가 책임 주체가 돼 국가 예산 투입·소유 피해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 자본 의존 방식의 한계를 들며 “광주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또 “선(先) 투자·후(後) 회수 구조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 되고 부동산 경기, 환경영향평가, 주민 갈등 등 다 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이를 떠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무대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해 군 공항 시설 이전을 추진한 전례를 들어 군사적 중요성과 시민 피해 규모,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국가 책임이 더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전 사업의 책임 주체를 국방부로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 지원의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함 시점으로 지역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코스피 최근 10년 중 ‘산타렐리’ 5번

호재 많아 올해도 기대감 ‘솔솔’

최근 10년간 국내 증시에서 ‘산타렐리’가 격년 에 한 번꼴로 반복되면서 올해도 산타가 찾아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거에서는 이미 미국 증시에서 연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1일 3920.37에서 12일 4167.16으로 6.30%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전반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며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산타렐리는 연말·연초 주가가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성탄절(12월 25일) 전후로 기업의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 증가와 기업실적 개선이 증시 강세로 이어지는 일종의 ‘캘린더 효과’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10년(2015~2024년)간 연말 코스피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10년 중 5번으로 집계됐다. 격년에 한 번꼴로 산타렐리가 나타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2.15%), 2019년(5.06%), 2020년(9.08%), 2021년(2.69%), 2023년(6.00%)에 12월 중 코스피가 상승했다. 반면에 2015년(-3.09%), 2017년(-0.32%), 2018년(-4.26%), 2022년(-9.81%),

2024년(-2.24%)에는 하락했다.

각 연도의 1~11월 코스피 증감률은 2015년 3.40%, 2016년 3.38%, 2017년 22.22%, 2018년 -15.44%, 2019년 3.88%, 2020년 19.13%, 2021년 -3.58%, 2022년 -17.27%, 2023년 13.91%, 2024년 -8.01%였다.

2015년, 2017년, 2021년을 제외하면 12월 코스피 수익률은 나머지 기간(1~11월)과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1~11월 코스피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20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12	21	33	37	40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920,410,813	14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1,109,712	109
3	5개 숫자일치				1,190,478	3,764
4	4개 숫자일치				50,000	180,212
5	3개 숫자일치				5,000	2,723,770

‘붉은 말’의 해 2026년, ‘R·E·D’ 업종 뜬다…AI 수혜 확대

〈반도체·에너지저장장치·디스플레이〉

대한상의, 산업기상도 조사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석유화학·철강·건설 ‘먹구름’

붉은 말의 해인 내년에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수혜에 힘입어 반도체(DRAM)·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디스플레이(Display) 등 ‘R·E·D’ 업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분석한 ‘2026년 산업기상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은 ‘대체로 맑음’, 기계·석유화학·철강·건설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3% 성장한 1650억 달러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9.1%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디스플레이는 AI 기기 성능의 상향 평준화와 전력효율이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요 증가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3.9% 증가한 176억7000만 달러로 예측됐다.

배터리 역시 AI 데이터센터용 ESS 수요 증가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2.9%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발 첨단제조제약공제(AMPC) 수혜 축소 및 중국산 시장점유율 확대는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바이오업종은 국내 CDMO(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대규모 설비 가동 본격화와 미국 생물보안법 반사이익이 맞물려 대형 위탁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업종은 국내 전 기차 신공장 가동 본격화로 2026년 생산이 올해

대비 1.2% 증가한 413만대, 수출은 1.1% 증가한 275만대로 예상된다.

조선산업은 내년 올해 대비 8.6% 증가한 339억2000만 달러의 수출이 전망된다.

섬유패션산업은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고부가 패션 상품의 수요 증가,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등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2.0% 증가한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업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저유가에 따른 납사 등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올해 대비 6.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 산업은 미국의 통상보호조치와 EU의 철강수입규제(TRQ) 등의 영향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2.1% 감소하고, 기계산업은 3.7%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 생산 EV5, 넷플릭스 영화 ‘나이트스 아웃’과 협업

전동화 패밀리 SUV 특징 홍보

기아가 광주에서 생산 중인 ‘더 기아 EV5’와 넷플릭스 인기 영화의 협업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선보였다.

14일 기아에 따르면 넷플릭스 영화 ‘나이트스 아웃: 웨이크 업 데드 맨’은 미스터리 추리 스릴러 ‘나이트스 아웃’의 세 번째 영화로 유명 탐정인 브누아 블랑이 사건을 해결하며 겪는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풀어내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아는 EV5의 ‘집을 떠나 마주한 두 번째 집’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보여주는 실내 공간성과 공간 활용 특화 사양을 나이트스 아웃 세계관으로 담아낸 영상을 공개하며 EV5가 지닌 전동화 패밀리 SUV로서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알렸다.

티저 영상에 이어 이번에 공개된 30초, 60초 분량의 메인 영상 2편은 EV5를 영화의 배경으로 끌고 와 주인공과 함께 EV5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추리 과정을 따라가는 전개를 보여준다. 영상 곳곳에 시리즈의 등장인물, 배경 등을 녹여내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를 표현했으며 EV5의 넓은 실내 공간과 기능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이번 캠페인은 기아가 넷플릭스 영화와 함께 한



기아가 넷플릭스 영화 ‘나이트스 아웃: 웨이크 업 데드 맨’과 협업한 영상을 선보였다. 기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 갈무리.

국·캐나다·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총 6개국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EV5의 해외 출시 시점에 맞춰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아는 지난해 11월 ‘더 뉴 스포티지-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윌트디즈니 컴퍼니의 브랜드인 디

즈니·픽사·마블·스타워즈·내셔널지오그래픽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 출시 등 협업 영역을 넓혀가며 다양한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